

장소 바꾸고... 시간 당기고... '예측 불허' 김위원장

1차때도 사전 통보 없이 순안공항 출영

외부에 동선 사전 노출 꺼리기 때문인 듯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일정은 외부의 예측을 불허함으로 다시 한번 보여졌다.

3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 첫 정상회담은 당초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었지만 김 위원장은 30분 앞당겨 회담장이나 노 대통령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에 나타남으로써 회담도 30분가량 앞당겨졌다.

김 위원장의 예측 불허 일정은 무엇보다 김 위원장의 동선이 사전 노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전날 노 대통령의 영접행사도 당초 남북이 합의했던 장소를 3대현장기념사에서 당일 오전 인민대학습당으로 바뀌었다고 남측에 통보했고, 김 위원장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준비기간 내내 함구하다가 당일 오전 4·25문화회관 앞 광장에 출영할 것임을 통보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도 김 위원

장은 사전 통보없이 순안공항에 출영했을 뿐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과 승용차에 동승하는 예측불허의 행보를 보였다.

북측은 당시 6월13일로 합의했던 회담 날짜 자체를 하루 전날 일방적으로 하루 늦춘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이번에 회담장에 30분 앞당겨 나타남 것은 회담 시간을 늘려 의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생각도 작용한 것 아니냐는 풀이도 있다.

오전 오후 두차례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예상되는 평화보장과 남북간 경제협력 등의 문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김정섭 청와대 부대변인은 첫 회담이 30분가량 앞당겨진 데 대해 “저희는 앞당겨진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며 “1차(정상회담) 전례에 비해



노무현 대통령이 3일 오전 백화원 영빈관에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선물한 통영 나전칠기로 만든 12장생도 병풍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평양=청와대사진기자단

그렇게 진행될 수 있었다고 본 것이 지 30분 차이가 변경 등의 사정이 있었다는 것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의 말대로라면 1차 회담의 시작 시간이 남북 양측간 확정되지 않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김 위원장 일정은 외부에서 보기에 항상 유동적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다. /평양=공동취재단

노대통령 12장생도 병풍 선물에 김위원장 "귀한 진품 감사합니다"

다기·차·DVD도 선물

‘2007 남북정상회담’ 남북대표단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전달한 선물이 3일 공개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1차 정상회담을 위해 오전 9시 27분께 노 대통령의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을 찾은 김 위원장에게 회담장 입구에 미리 진열해놓은 선물들을 소개했다.

선물은 경남 통영의 나전칠기로 만든 12장생도 8폭 병풍과 무궁화 문양의 다기 및 접시, 제주도 8도 명품 차, DVD 세트와 드라마·다큐멘터리·영화 CD 등 모두 네 종류였다.

DVD에는 ‘대장금’과 ‘겨울연가’, ‘말아톤’, ‘YMCA야구단’, ‘취화선’, ‘DMZ는 살아있다’ 등 여러 장르가 망라됐다.

12장생도에 대해 노 대통령은 “남쪽의 장인(匠人)이 만들었습니다. (부산)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때도 이 분이 만든 작품을 회의장에 설치했습니다”라고 설명했고 설명을 다 들은 김 위원장은 “귀한 진품을 가져다 주셨다”면서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

노 대통령은 무궁화 문양의 다기를 가리키며 “평소(외국) 정상들이 청와대를 방문할 때나, (제가) 해외에 나갈 때 외국 정상들에게 선물로 주는 세트”라고 소개했다.

DVD에 대해선 노 대통령이 “내용도 좋지만 화면도 좋다”며 우리 기술을 언급하면서 “요즘은 줄거리 못지 않게 화면을 화려하게 처리해서 관심을 끄는 영화가 많다”고 설명했다.

2000년 정상회담 때는 우리 측에서 진돗개 2마리와 국내 방송이 수신되는 60인치 TV 1대, VTR 3세트, 전자오르간 등을 김 위원장에게 선물했다.

(부산) APEC(아시아태평양

“김위원장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 확인

북 개혁·개방에 대한 불신·거부감 느껴”

■ 노대통령, 남북대표단과 오찬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3일 “오전에(김정일 국방위원장)와 습습일이 진솔하게 얘기를 나눴다”며 “분명하게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평양 유류관에서 남북 대표단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오찬사를 통해 직전에 열렸던 김 위원장과 단독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한 뒤 “긍정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 미래를 위한 합의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는 논쟁은 따로 없었다”면서도 “한가지 솔직히 벽을 느끼기도 했다. 남측은 신뢰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북은 의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

었다. 불신의 벽이 있었다”고 언급한 뒤 “그 중에서 예를 들면 개혁·개방에 대한 불신과 거부감이 그렇다. 어제 김영남 위원장과 면담에서도 그렇고 오늘 정상회담도 그렇고...”라고 예를 들었다.

노 대통령은 “속도에 있어서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장애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개성공단의 경우 우리 식의 관심이 북이 때때는 남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역지사지 하지 않은 표현”이라며 “개성공단의 성과를 얘기할 때도 역지사지해야 해주니” 생각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우리도 마음이 바쁘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 한국 경제가 그런 상황에 있다는 데 샌드위치에 끼어 있으니 우리 마음이 급하다”며 “중국도 물러쳐야 하고 일본도 물러쳐야 하니가 마음 급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동취재단

김위원장 '체류연장' 제의 긴박했던 두시간

'통 큰 결단' 나오나 수용 여부 긴급 논의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간 3일 정상회담이 오후 2시간여동안 아찔한 급박전을 2차례나 이어갔다.

김 위원장이 ‘2007남북정상회담’의 일정 연장을 요청했다 예상대로 처프기로 입장을 바꾸면서 남북 대표단은 오후 한때 극도의 긴박감을 느껴야 했다.

김 위원장의 연장 요청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문가들 사이에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려는 북측의 의지가 작용하는 것 아니냐’거나 ‘남북간 이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아니냐’ 등의 분석이 나왔다.

대화 시간이 아쉬운 상황인데, 아리랑 공연과 각종 경제 시설에 대한 참관 일정과 오·만찬 일정 등을 감안하면 오후 회담도 2시간 안팎에 불과한 실정인 만큼 하루 연장해 서라도 심도있는 ‘결정 토론’을 통해 ‘6·15공동선언’을 뛰어넘는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제안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있는 결과를 내려는 의지의 이면에는, 오전 첫 정상회담에서 적잖은 이견이 노출되면서 쉽지 않은 회담이 됐고, 그래서 시간이 더 필요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양 정상에 대화를 통해 북한의 개혁, 개방과 핵문제, 남북 경제협력, 한반도 평화문제 등 큰 그림을 그리는 가운데 입장 차이가 노출됨에 따라, 이견 해소는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김 위원장이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회담장 밖에서 회담연장 제의에 대해 긍정적 전망과 부정적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김 위원장은 오후 회담 말미에 “충분히 대화를 나눴으니(연장) 안 해도 되겠다. 남측에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 본래대로 합시다”라고 연장 제안을 철회함으로써 긴박함이 해소됐다.

일단 오후 회담을 통해 양측의 이견이 풀리면서 합의문이 만들어질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오히려 양 정상은 4일 오전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을 선언 형식으로 발표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합의문에 담길 내용으로 관심이 이동했다.

김 위원장이 회담 연장을 요청하면서까지 이번 회담에 대한 의욕을 보인 만큼 합의문에는 한반도 정세와 남북 관계를 급진전시킬 ‘큰 선물’이 담기는 것 아니냐는 성급한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연방뉴스

남북정상 소나무 공동식수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 사흘째인 4일 공동으로 나무를 심는 행사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섭 청와대 부대변인은 3일 남북정상회담 서울 프레스센터가 차려진 롯데호텔에서 브리핑을 통해 “남북 정상이 정상회담을 기념하는 의미로 평양 중앙식물원에서 소나무 한 그루를 식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일 위원장 참석 여부 불투명

한라산·백두산 흙 합도·물 합수

김 부대변인은 “식수를 위해 백두산과 한라산의 흙을 합토

하고, 백두산 천지와 한라산 백목담의 물을 합수하는 사진 순서도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행사 유무는 아직 유동적이며,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성사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평양 공동취재단은 당초 3일 오후로 예정됐던 공동 식수 행사는 4일로 연기됐다고 전했다.

김정일 위원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중 누가 행사에 참석하게 될 지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김 부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그는 “양 정상 간 것처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인식을 같이하고 실질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가져오기 위한 회담 자체가 중요하다”며 “여러 가지 일정은 전반적으로 회담에 뒤따라가면서 배치된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연방뉴스

산행안내

10월 6일(토) ▲팔성산악회 거문도 벽도 등반길... ▲다들카제(사)오산오산악회... ▲다들카제(사)오산오산악회...

10월 7일(일) ▲한울산악회 지리산... ▲한울산악회 지리산... ▲한울산악회 지리산...

10월 8일(월) ▲광주영문산악회... ▲광주영문산악회... ▲광주영문산악회...

10월 9일(화) ▲빛고을광주산악회... ▲빛고을광주산악회... ▲빛고을광주산악회...

10월 10일(수) ▲광주보라미산악회... ▲광주보라미산악회... ▲광주보라미산악회...

10월 11일(목) ▲대현산악회... ▲대현산악회... ▲대현산악회...

10월 12일(금) ▲광주도오산악회... ▲광주도오산악회... ▲광주도오산악회...

10월 13일(토) ▲광주청도산악회... ▲광주청도산악회... ▲광주청도산악회...

10월 14일(일) ▲한울산악회... ▲한울산악회... ▲한울산악회...

전통 침·뜸

공개강좌

- 의료개방 및 의료법 개정 대비 침구인 양성과정
- 중국 추나침구사·피부 미용사·안마사 자격취득

주요 과목	체침(전통침), 뜸, 부항, 경혈, 경락, 이침, 뜰침, 피부관리, 비만침법, 미용침법, 두침, 수자침, 약용식물관리, 한방기초 등
-------	---

광주분원 공개강좌 및 설명회

- 일 시: 10월 18일 목요일 오후 2시
- 위 치: 광주시 동구 학동 649-45번지 3층 (호선 중성사입구역 2번출구에서 직진 S-OIL유류소 옆 건물)
- 본강의: 매주(목) 오후 2시 ~ 6시 (총 16주완성)
- 월회비: 86,000원 (교재포함)
- 참가자격: 나이, 학력, 경력 제한 없음

1544-5359/236-3516

당뇨병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문의하신 모든 분들께 세계가 깜짝 놀랄기적의 물질 “천지영천수”에 대한 소책자를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안내서 신청 문의

070-7012-0246

H.P.017-291-3115

www.cjyc.co.kr

CH 중국문화원

www.wchina.co.kr